

미국 동중부 (미드-애틀랜틱) 교회들의 노동절 쉬임 집회

2021 년 9 월 3-5 일

메시지 1

교회 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위치에 서서 모임

성경: 마 16:18; 18:15-20; 히 10:25

I.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집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마 18:20; 고전 14:23 상.

- A. 그리스도인은 집회하는 사람이다. 집회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없는 것이다—마 16:18, 각주 4; 18:15-20.
- B. 집회가 없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장하기가 매우 어렵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전 14:23-26, 31.
- C. 교회 생활은 집회의 생활이다. 우리는 모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항상 모이는 습관을 세워야 한다—행 2:42, 46-47; 히 10:25.

II. 우리는 교회의 위치를 알아야 한다 — 마 16:18; 18:17.

- A. 신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믿는 이들의 집회에 관해 언급한 곳은 마태복음 18 장이다.
 - 1. 주님은 15 절에서 한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그에게 가서, 그를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17 절에서 만약 그가 그대의 말과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교회에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 2. 이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교회, 한 장소에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지방에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 만약 죄를 지은 형제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면, 그 결과 그는 교회에게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지게 된다—17 절, 각주 1.
 - 3. 이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며,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함을 말한다. 우리가 교회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면서 우리 자신을 매우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 4.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은 수많은 개인들을 택하실 의도가 없으시다. 그분의 의도는 집합적이고 단체적인 한 백성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택하시는 것이다—16:18; 엡 1:22-23.
 - 5. 우리 모두는 거듭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에서는 교회의 한 부분이지만, 위치적으로는 이방인과 똑같이 교회 밖에 있을 수 있다—요 3:3, 5-6; 엡. 2:19; 비교 마 18:17.
 - 6.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은 엄중한 일이다—비교 레 25:29, 각주 1.
- B. 우리가 합당하게 모으려면 우리의 집회는 반드시 교회와 연관되어야 하고, 교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마 18:15-20.

1. 어떤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이는 집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마태복음 18:20 절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구절의 문맥을 간과했다. 이 구절의 문맥은 믿는 이들의 집회가 교회에 속한 것이며, 교회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 준다.
2. 사도행전에서 믿는 이들이 집집마다 모인 예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가정 집회에서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의도하고 결정한 것을 단지 수행하는 것이었다—행 2:46; 5:42; 12:5 하-16.
3. 모이는 합당한 길은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모이거나, 교회로서 모이는 것이다.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인다면, 그 때 우리는 교회로서 모인다. 그러나 전체 교회가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여러 장소에서 모여야 하겠지만 이 모든 집회들은 다만 한 교회의 일부이다—고전 14:23, 33.
4. 이 문제는 몸의 하나와 많은 관계가 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해 모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교회와 하나이고 어떤 분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집회들은 교회 안에 하나 안에 지켜질 것이다.

III.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교회를 의식해야 한다 — 마 18:15-20

- A. 오늘날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집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관해서 전혀 의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집회는 교회와 연관되지 않거나, 교회를 의식하지 않는다.
 1.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안다면, 교회가 없는 방식으로 모이는 것은 사실상 죄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를 합당하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열적인 방식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한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를 지키지 않은 채 모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회로 그리스도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3.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명해져야 한다.
- B.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의식했으며 교회와 연관되어 있었다.
 1. 초기 교회의 시대를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거듭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항상 교회를 의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진다.
 - a.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으면서” (행 2:44 상) — 이는 그 당시에 믿는 이들이 모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항상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 b. “사도들은 석방된 후에 그들 자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4:23 상) — 31 절에서 우리는 이것이 집회였음을 본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한다.
 - c.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5:11) — 이 구절의 문맥은 이 사건이 집회 중에 발생한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집회가 교회에 속한 것이어야 하며, 심지어 교회이어야 함을 입증한다.
 - d.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8:1 상, 3 상) — 초기의 모든 믿는이들은 교회를 의식했다. 그들은 자신을 개인적인 믿는 이로 여기지 않고 단체적인 교회로 여겼다. 그들이 핍박받았을 때, 이것은 교회가 핍박받은 것을 의미했다.
 - e. “그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11:22 상) — 초기의 믿는 이들은 그들의 귀를 교회의 귀로 여겼다.

- f.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12:12) —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 g. “안디옥에 있는 교회,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13:1 상) — 신언자들과 교사들은 모두 실제적인 방식으로 교회의 일부였고 교회 안에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집회에서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과 사역과 봉사에 있어서도 교회를 의식하고 교회와 연관되어야 한다.
 - h.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우고” (14:23 상) — 이것은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음을 입증한다.
 - i. “교회들은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수가 날마다 증가하였다” (16:5) — 이 구절에서 ‘믿는 이들’ 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들’이라고 말한다. 초기 교회 시대의 믿는 이들 안에 있었던 것은 오직 교회였다.
- C.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참으로 교회를 의식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집회와 연관된다. 이것이 우리의 집회를 위해 배워야 할 첫째 원칙이다. 우리는 교회의 방식으로 모여야 한다.

메시지 2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집회의 원칙들

성경: 마 28:16-20; 막 16:14-19; 눅 24:36-51; 요 20:19-23; 21:1-17; 행 1:4-8

I. 우리는 네 복음서들의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 그분의 부활 후 그분의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신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기록에 근거하여, 우리는 어떻게 모이는 지에 대한 열 네가지 원칙을 볼 수 있다.

- A. 우리가 마태복음 28 장과 마가복음 16 장, 누가복음 24 장과 요한복음 20-21 장, 그리고 사도행전 1-2 장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한 일은 다만 모이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고 사업이었으며 직업이었다. 그들은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 B. 우리는 집회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신 것에 관한 모든 기록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에서 주님께서 집회의 원칙을 세우신 것을 본다.

II. 우리는 종교 밖에서 그리고 어떤 형식도 없이 모여야 한다 — 마 28:16.

- A. 모든 제자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종교에 따라 성전에 가서 모이고,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켰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인 집회 중 그 어느 것도 종교적인 옛 방식으로 모인 것이 없었다—요 20:19-29; 21:1-22; 마 28:16-20.
- B. 오늘날 우리도 원칙적으로 초기의 제자들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 우리도 오늘날의 성전과 절기와 규례가 있는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하지만 종교는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이어야 한다.

III. 우리는 부활 안에서 주님의 형제들로서 모여야 한다 — 요 20:17; 히 2:12.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이 되었다—벧전 1:3; 요 20:17; 롬 8:29.
- B.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부활 안에서 주님의 형제들로서 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본성에 속한 어떤 것도 집회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 C. 집회에 올 때, 우리는 자신을 보아서 안되고 주님을 보아야 한다. 자신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보라.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실패를 덮는다. 우리는 이 피의 적용함으로써 즉시 부활 안에 그리고 삼층천에 있을 수 있다.

IV.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 모여야 한다 — 요 20:11-18; 눅 24:1-36.

- A. 초기의 많은 제자들이 집회에 오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하고 놀랍고 귀한 체험들을 가졌다—요 20:11-18; 눅 24:1-36.
- B.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사랑스런 주님에 대한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험을 갖고 집회에 올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해 간증하는 끌어오르고 넘쳐흐르는 무언가를 갖게 된다—비교 영한 동번 1216 장.

V.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 마 28:7, 16.

- A.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먼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셨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유대 종교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주님은 종교에서 완전히 벗어난 집회를 원하셨다.
- B. 원칙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집회하는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정하신 장소에서 함께 모여야만 한다—신 12:5-14.

VI. 우리는 주님 자신과 만나야 한다 — 마 28:7.

- A. 우리는 집회에 가는 유일한 목적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영한 동번 204 장 (찬송가 166 장), 영한 동번 215 장.
- B. 우리는 위대한 설교자의 말을 들으려고 집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회에 간다. 우리는 좋은 메시지를 들으려고 집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회에 간다.

VII. 우리는 주님께 만족을 드리고 주님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 모여야 한다 — 요 21:5; 눅 24:41-43.

- A. 합당한 집회의 의미와 목적은 주님께 먹을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다—요 21:5; 눅 24:41-43.
- B. 모이는 것은 먹는 것이다. 우리의 집회는 음식을 먹는 일종의 잔치여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신다.

VIII.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 마 28:16-17.

- A. 마태복음 28 장에서 제자들이 산에서 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즉시 그분을 경배하였다 (16-17 절). 우리가 주님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
- B.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참 주님이신 그분을 격찬하고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요 4:23-24.

IX. 우리는 주님께서 내선 호흡을 들이마시기 위해 모여야 한다 — 요 20:22.

- A. 요한복음 20 장에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가셨고, 그분이 하신 주된 일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신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였고,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이기도 하다—비고 겔 37:1-14; 영한 동번 844 장 (찬송가 607 장).
- B. 우리가 그분께 열려 있다면, 그분은 숨을 내쉬실 것이고 우리는 들이마실 것이다.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내쉬신 호흡을 들이마시기 위해 모인다.

X.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한다 — 행 1:3.

- A.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실 때마다 그분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하심이 필요하다.
- B. 주님의 말씀하심은 새로운 것이며,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즉각적이고 최신의 것이다.

XI.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모여야 한다 — 눅 24:27, 44-47.

- A. 주님은 의도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이실 때에야 성경을 열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27 절, 44-47 절.

B. 우리는 집회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어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을 앙망해야 한다.

XII.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모여야 한다 — 요 20:24-29; 행 1:6-11.

A. 제자들은 집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다.

B.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시며 또 승천하신 분이심을 보아야 한다.

XIII. 우리는 주님의 위임을 받기 위해 모여야 한다 — 마 28:19-20; 막 16:15; 눅 24:47-48; 요 21:15-23; 행 1:8.

A.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위임을 주셨다.

B. 오늘날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모인다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에게서 어떤 위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어떤 종류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XIV.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 행 1:12-14; 비교 마 6:31-33.

A. 사도행전 1 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했음을 본다—12-14 절.

B.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모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왕국을 위해, 주님의 회복의 확산을 위해, 지방 교회들의 건축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

XV.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모여야 한다 — 행 2:1-4.

A. 오순절 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들이 앉아 있던 방을 가득 채우셨고, 그들은 모두 높은 곳에서 온 능력으로 옷 입었다—1-4 절.

B. 우리는 많은 집회에서 이러한 종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집회를 하고 있을 동안에, 우리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지 3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며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임

성경: 마 28:8-20; 막 16:9-19; 눅 24:9-49; 요 20:11-29; 21:1-24; 행 1:6-13

I.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야 한다.

- A. 마태와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주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집회는 첫째 부류의 집회,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집회였다—마 28:8-20; 요 20:11-29; 21:1-24:
1.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고전 15:45 하.
 2.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종류의 집회에서 하시는 주된 일은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다—요 20:22.
 3.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신다—고전 6:17, 롬 8:9-11; 딤후 4:22.
 4.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써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모시고 집회에 와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과 함께 모이는 것이다—마 28:8-20; 요 20:11-29.
 5.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과 가졌던 집회가 그리스도께서 전체 교회와 가지신 첫 집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본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인의 첫 집회 때에 세워진 원칙들을 주의해야 한다.
- B. 함께 모이는 합당한 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다.
1. 마태복음 28 장, 마가복음 16 장, 누가복음 24 장, 요한복음 20 장과 21 장, 그리고 사도행전 1 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계시하는 일종의 그림이다. 이것은 어떻게 그분이 살아 계시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 주는 완전한 기록이다.
 2.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 20:14-18; 고전 15:5, 7); 두세 명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 28:8-10);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요 20:11-17); 우리가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21:1-17);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할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20:19, 26-28);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분은 더욱 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눅 24:9-35).
 3. 우리는 이 성경 한 구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보십시오, 나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마 28:20).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4. 우리가 합당한 집회, 살아있는 집회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집회는 종교적이어서는 안되며, 가르침에 속한 것이거나 어떤 형식이나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집회는 다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 계신 분을 실제적으로 매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영한 동변 1281 장.

II.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여야 한다.

- A.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집회에 대해 보여준다—막 16:14-19; 눅 24:46-51; 행 1:4-9; 2:1-41.
1. 이 세 책들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분명히 말한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가졌던 여러 집회 중 한 집회에서, 그들 앞에서 승천하셨다—막 16:19; 눅 24:51; 행 1:9:
 2. 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였지만 지금 그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였다.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소식이 아니다.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놀라운 광경이다.
 3.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호흡해 들이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 위에 불어 오는 강하고 힘찬 바람이 필요하다—2:1-2.
 4.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모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며,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둘째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집회이다—33-36 절.
- B.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집회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집회에 큰 차이점이 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은 주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이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1. 생명 주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리의 집회는 주로 그분을 들이마시므로 그분의 어머함에 참여하는 것이다—요 20:22; 21:5, 12, 15.
 2.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이다—마 16:18; 고전 14:4.
 - a.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인도하고, 서로 건축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기능과 은사를 요구한다—행 2:1-41.
 - b.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을 통해 은사들을 받으셨고, 이 은사들을 몸의 건축을 위하여 그분의 교회에게 주셨다—시 68:18, 각주 1; 엡 4:7-12.
 - c. 부활은 생명을 위한 것이지만 승천은 은사를 위한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호흡과 섬취와 만족을 위한 것이지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이는 것이 필요하다—영한 동변 271 장 (찬송가 220 장).
- C.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인다.
1.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느낌이 필요하지 않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롬 8:6; 비교 고후 4:13.
 2.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침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전 12:13; 영한 동변 273 장 (찬송가 223 장).
 - a. 성령 침례는 오순절 날 한 번에 성취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인 믿는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성취되었다—행 1:4-8; 2:1-4; 영한 동변 277 장 (찬송가 224 장).
 - b. 지금 우리 모두는 몸인 교회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 날 교회를 위해 성취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침례를 요구하고, 취하고, 적용해야 한다—고전 12:13; 영한 동면 276 장 (찬송가 222 장).

3. 우리는 영과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비교 고후 4:13.
 - a. 우리는 우리 영과 믿음을 사용하므로 완전히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전 14:15; 영한 동면 866 장 (찬송가 628 장).
 - b.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와 머리되심과 주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영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III.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집회를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A. 제자들은 좋은 집회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고자 했다.
 1. 부활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 했고 위협과 핍박 아래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지불해야 했던 대가였다—요 20:19.
 2. 그리고 어느 시기에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마 28:16). 그리고 주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이 땅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행 1:4). 제자들은 위협과 핍박의 상황에 더하여, 그렇게 먼 곳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된 대가였다.
- B. 우리가 어떤 집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참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이다.
- C. 우리는 모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집회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기 원한다.
- D. 만약 우리가 참으로 교회 생활에 진지하다면, 우리는 교회가 집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를 위해 여기에 있다는 것은 집회를 위해 여기 있다는 뜻이다—비교 롬 12:1.

메시지 4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사랑과 신언에 의해, 영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가지고, 우리 영을 나타냄으로 모임

성경: 마 18:20; 고전 14:1, 32; 눅 24:36-51; 요 20:19-23; 21:1-17; 행 1:4-8

- I.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임 필요가 있다. 주님의 이름의 실재는 그 영 안에 있다. 그 영은 우리 영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을 훈련해야 한다 — 마 18:20; 요 14:26; 롬 8:16.
- A. 주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실재는 성령 안에서 모이는 것이다—영한 동번 863 장 (찬송가 627 장), 6 절.
1. 그리스도인의 집회에 관한 진리와 관련해서 (복음서에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씨이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성장이고, (서신서들에서) 그 영 안에 있는 것은 수확이다—마 18:20; 행 2:38.
 2.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성령이 없다면 주 예수님의 이름의 실재도 없다.
 3. 예수님의 이름의 모든 능력과 실재는 성령 안에 있으며, 또한 성령이다.
 4. 주님은 요한복음 14 장 26 절에서 성령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보내어 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안에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영이다. 그 영은 그분의 이름의 실재이다.
 5. 고린도전서 12 장 3 절은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 영 안에 있다. “주 예수님” 하고 부르면 당신은 그 영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 영이 예수님의 실재이시기 때문이다.
- B. 성령은 오늘날 우리 영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롬 8:16, 딤후 1:6-7.
1. 그 이름의 실재는 성령이시며,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2. 우리가 함께 집회하는 비결, 즉 열쇠는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 장 32 절이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31 절은 우리 “모두가 신언할 수 있다” 고 말한다. 그리고 32 절은 신언하는 것은 다만 우리 영을 사용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3. 신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 위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우리가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따라서 흘러 나오신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 C.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1. 우리는 다만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함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서 먼저 움직이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2:3.
 2. 우리가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령의 영감 안에 있다. 우리는 영감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영감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집회에서, 우리의 집에서, 하루에 천 번씩 “주 예수님” 이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영한 동번 782 장 (찬송가 302 장), 영한 동번 1083 장 (찬송가 1049 장).

3. 그리고 집회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두 번째 길은 신언하는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4:31-32.

II. 우리는 더 큰 은사와 가장 뛰어난 길인 신언과 사랑을 통해서 모일 필요가 있다 — 고전 12-14.

- A. 고린도전서 12 장 결론 부분에서 사도는 우리가 “더 큰 은사들” 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 큰 은사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나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신언하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신언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이다—고전 14:3-4.
- B. 바울은 우리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그 뛰어난 길은 사랑이다—13:1.
- C. 고린도전서 12, 13, 14 장에서 우리가 받은 주된 인상은 뛰어난 두 가지, 곧 사랑과 신언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고 신언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사랑은 생명이고 신언은 기능이다—14:1.
- D. 우리는 사랑과 신언이 그 영계 속한 것이고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건축하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뿐임을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랑이고(8:1) 둘째는 신언이다(14:5).
- E. 마지막으로, 15 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생명하시고, 우리의 신언과 기능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심을 본다—45 절.

III. 우리는 영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가지고 모일 필요가 있다 — 고전 1:2, 9; 2:4; 7:40.

- A. 만약 우리가 합당한 방식으로 모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영 안에 우리의 생명으로 계시는 그분을 소유할 것이다.
- B. 이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신언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함께 집회를 할 때 일상생활에서 이미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집회하는 길이다.
- C.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준다—1:24, 30; 15:45.
 - 1. 1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신(24 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신 것을 본다—30 절.
 - 2.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고 말한다(15:45). 지금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모든 어떠한 심은 우리 존재의 다른 기관이 아닌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실재화되고 체험되어야 한다—비교 딤후 4:22; 롬 8:10, 6.
 - 3. 고린도전서 6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19 절),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임을 본다—17 절.
- D.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든 장들의 문맥을 살펴 보고 완전한 조망을 얻은 후에, 우리는 집회 안에서의 기능이 매일의 일상생활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우리가 합당하게 함께 모이는 길은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 1. 이것은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는지 배워야 한다—비교 롬 8:4.

2.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행한 사람임을 보았다. 그는 영 안에서 매우 강했고, 항상 그의 영을 사용하고 훈련하였다(고전 4:21; 5:3-4; 골 2:5). 이것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길이고, 이러한 종류의 생활이 우리가 합당하게 모이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이다.

IV. 우리는 우리의 영을 나타냄으로 모여야 한다 — 고전 2:1-4; 딤후 12:7.

- A. 이제 우리는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말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은 영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의 영을 나타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결코 공급할 수 없다—고전 2:1-4.
- B. 우리 모두는 집회 안에서 영을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것을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딤후 1:7.
- C. 누구든지 일어나서 신언할 때마다 그 영의 나타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함께 모이는 합당한 길이다. 이것은 방법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다.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 D.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집회 생활은 이것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일종의 연기가 아니라 전시이다. 그리스도인의 집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전시하는 것이어야 한다—영한 동면 864 장 (찬송가 624 장).
- E. 여러분과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접촉하기 위해 단순하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다.
- F. 우리 모두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계속 무언가를 말하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이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찬송을 부르기를 배워야 한다. 말하고 찬송하는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집회에서 매우 살아있고 활동적이고 진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 G. 여러분이 집회에 대하여 주님께 진지하다면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농구팀처럼 좋은 경기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경기 시작 전에 도착하여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항상 앞에 앉아야 한다.
- H.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대항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계속 가장 먼저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말해야 한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질이 세워질 때까지 잠시동안 잠잠한 것이 좋을 것이다.

집회에 오는 길과 찬양의 실행

성경: 시편 84:1-2; 55:14; 122:1; 42:4; 96:8; 딤편. 4:7

- I.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집회에 와야 하는지 (즉 집회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회에 오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이르렀다. 우리가 집회에 오는 것은 일종의 준비이다.
- II. 시편에서 우리는 고대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의 모임에 올 때, 적어도 일곱 가지를 가지고 온 것을 본다.
- A.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거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와야 한다—시편 84:1-2; 영한 동번 852 장 (찬송가 616 장).
1. 주님의 거처를 사모하는 것은 실제로 말해서 집회를 사모하는 것이다.
 2. 우리가 참으로 집회를 사랑한다면 교회가 우리의 실제적인 집이며 실제적인 가정 생활이라 말할 것이다. 우리는 “집회가 없다면 나는 병(향수병)이 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3. 우리는 모두 집회를 사모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집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집회에 가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집회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내거나 환경을 돌파해 내고 올 수 있다.
 4. 어떤 것도 집회를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집회에서 받는 축복과 안식과 생명과 빛과 함양과 건축 등을 어떤 다른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영한 동번 1152 장 (찬송가 964 장).
- B. 둘째로, 우리는 “달콤하게 의논하며” 집회에 와야 한다—시편 55:14:
1. 우리는 집회에 가기 전에 어떤 교통을 하는 것이 좋다. 집회에 가는 도중에 형제자매들과 달콤하게 교체하고 곧 있을 잔치를 기대하며 함께 교통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2. 이것이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집회에 오는 둘째 길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주께로 돌이켜질 것이고, 우리의 영은 신선하게 되고 해방될 것이다.
- C. 셋째로,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의 집에 오지 말고, 가능하다면 지체들과 함께 와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 한 무리씩 와야 한다—42:4; 122:3-4:
1. 심지어 집회에 오는 것에도 우리는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함께 무리 지어 집회에 올 필요가 있다.
 2. 집회에 함께 오는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된다. 이것은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의 이웃과 대적에게 참된 간증이다.
- D. 넷째로, 우리는 기쁨의 소리를 발하며 집회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42:4:
1.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거나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 집회소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집회에 가는 도중에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야 한다.
 2.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하기란 다소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무리 지어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하다. 아마도 네다섯명과 함께 간다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주!” 라고 외치면서 집회에 갈 수 있을 것이다.
- E. 다섯째로, 기뻐하며 올 뿐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와야 한다—100:4:

1. 우리가 집회에 도착하기 전, 집회에 가는 길에서부터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를 모든 죄들과 허물에서 씻어주는 보혈로 인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2. 또한 우리는 다가올 집회에서 그분이 하실 모든 일에 대해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잘 준비될 것이다.
- F. 여섯째로, 우리는 집회에 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회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96:8:
- G. 마지막 일곱째로, 우리는 번제물이든지 다른 제물이든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물들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무언가를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한다. 우리 중 누구도 집회에 빈손으로 와서는 안된다—96:8; 비교 고전 14:26, 각주 1.

III. 우리는 찬양의 실행이 필요하다. 찬양 집회는 경건의 많은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은 훈련의 문제이다 — 딤후전 4:7.

- A. 우리의 입을 여는 습관을 세우는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으로 어떻게 찬양을 짓는지 배우도록 도와주는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명의 인도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집회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 B. 우리는 모든 집회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원칙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성육신의 원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1. 은혜의 시대인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다. 그분은 사람의 협력을 요구하신다. 다른 한편, 우리도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이 필요하다.
 2. 이러한 시대에 집회하는 비결은 우리의 영을 해방하고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영을 해방한다면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방되실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칙이다.
- C. 집회는 어떤 시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시작할 수 있다. 집회는 형식과 규율이 없이 그 영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찬송이나 간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님을 찬양함으로써, 집회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흐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입을 열고, 앞장서야 한다.
1. 단순히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영에서 짧고, 신속하고, 참되고, 신선하게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2. 우리는 모두 주님을 위해 곁을 넓으려고 함께 동역하는 하늘에 속한 팀이다. 팀 전체에 오직 한 개의 공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여 경기해야 한다—영한 동번 867 장 (찬송가 629 장) 2 절.
- D. 첫째로, 우리는 집회에서 결코 독립적이거나 개인적인 방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 안에서 민감하기를 배우고, 집회의 흐름을 감지하기를 배워야 한다. 일단 집회에서 어떤 것이 시작되면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따라가며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한다.
- E. 둘째로, 좋은 협력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사용할 뿐 아니라 우리의 귀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린다면, 우리는 즉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찬양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F. 우리가 기도로 말씀을 읽거나 찬양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한편으로는 해당 구절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에 우리의 신선한 체험을 적용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매우 인상적일 것이다—시편 45:1-2.
- G. 또한 집회에는 어떤 다양성이 필요하다. 그 어떤 종류의 틀에도 고정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는 살아 계신 영이 있다—영한 동변 1142 장 (찬송가 815 장).
 - 1. 영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항상 매우 민감하다.
 - 2. 우리의 목표는 노래를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각양의 방법으로 항상 영을 강화하고, 영을 풍성하게 하고, 영을 높이 이끄는 것이다.
- H. 자매들도 담대하게 집회에 참여해야 한다. 한 면에서 형제들은 너무 담대하다. 형제들은 자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반면에 자매들은 영과 목소리에서 강화되고 담대해져야 한다.
- I. 만일 여러분이 선천적으로 입을 여는 데 익숙하다면, 제한받기를 배워야 한다. 항상 조용한 사람들도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입을 여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입을 열기를 배워야 한다.
- J.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주님께 완전히 열어드리고 집회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한다. 우리 영 안에 있는 즉각적인 느낌에 따라 다만 주님을 찬양하라. 한 사람이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동역하여 같은 공을 칠 것이다.
- K. 집회하는 새로운 길은 그 영 안에 있는 길이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면, 분명히 말씀과 반대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말씀과 일치할 것이다. 하지만 그 영께서 인도하고 다스리는 요인이셔야 한다—롬 8:4; 갈 5:16.
- L.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영을 해방하고, 우리의 영을 강화하고, 우리의 영을 나타내는지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은 나타나실 (전시되실) 것이고, 아버지는 영화롭게 되실 것이고, 성도들은 함양될 것이며, 교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실제적으로 건축될 것이다. 이렇게 실행할 때 우리는 집회를 위해 준비될 것이다.